

# 어느 한 여인의 참회

이야깃거리 ③

“지난 20년간 내가 죽인 사람이 2천7백만 명이라니...”



노마 맥코비 Norma McCorvey. 그녀는 어느 한 사람의 외침이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바꾸어 놓으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노마는 도끼나 칼, 총과 같은 무기를 들고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무시무시한 살인마가 아니었다. 그녀는 매우 평범한 옆집 아줌마 같은 편안한 인상의 여인이었다. 그런 그녀가 **2천7백만 명을 죽인 사람**이라니... 사건의 전말은 이러했다.

21살의 꽃다운 나이, 노마의 삶은 꽃과 같이 아름답지만은 못했다. 그 나이에 그녀는 이미 아이 둘의 엄마였으며 셋째를 임신 중이었고, 세 아이의 아버지가 모두 달랐다. 어렸을 때는 성적으로 매우 문란한 어머니에게 학대를 받고 한 친척에게 성폭행도 당했었다. 13살 때 그녀의 부모님은 이혼하셨으며, 11살부터 어머니의 학대를 견디지 못해 어긋나기 시작했던 그녀는 21살이 될 때까지 술과 마약에 빠져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 어머니에게서 받지 못한 사랑을 다수의 남성들과 또 여성들과의 문란한 관계에서 채우려고 했다. 그러던 와중 셋째를 임신한 노마는 더 이상의 아이를 낳고 싶지 않았기에 당시 암암리에 불법으로 낙태 수술을 하던 병원을 찾아갔다. 하지만 그 병원은 그녀가 가기 일주일 전에 폐쇄되었고, 그 사실을 몰랐던 노마는 좌절과 함께 둘째 아이를 입양 보냈던 것처럼 셋째도 입양을 보내고자 한 변호사를 찾아갔다.

변호사: 낙태를 포기하고 아이를 낳아서 입양을 보내신다고요.

노마: 네, 그 방법밖에 없네요. 저는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녜요.

변호사: 노마, 음... 제가 아는 두 여성이 있는데 한번 만나보시겠어요? 로스쿨을 갓 졸업한 변호사인데요, 이번에 텍사스주의 낙태를 금지하는 법에 대한 위헌 소송을 준비 중에 있어요. 노마씨와 많은 여인들이 낙태를 금지하는 법 때문에 이렇게 자신의 몸을 원하는 대로 결정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아이를 낳아서 번거롭게 입양까지 하려고 하잖아요? 이런 전국적인 이슈의 주인공이 되어주었음 하는데... 한번 만나보시겠어요?

노마: (나 같은 사람이... 도움이 된다고?) 맞아요. 낙태금지법 때문에 이렇게 일이 꼬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꺼이 그 주인공이 되겠어요!

그렇게 그녀는 1973년에 미국을 “**낙태 합법국가**”로 만든 매우 중요한 사건의 영원으로 기록될 당사자, 제인 로 <sup>Jane Roe</sup> (가명)가 되었다. 그녀를 앞세워 미국에서 낙태를 합법화 시킨 여성들은 새라 웨딩턴 <sup>Sarah Weddington</sup> 변호사와 린다다커피 <sup>Linda Coffee</sup> 변호사였다. 그녀의 사건은 그녀의 가명 로 <sup>Roe</sup>와 당시 텍사스주 델러스 카운티 지방검사였던 헨리 웨이드 <sup>Henry Wade</sup>의 이름을 따서 로 대 웨이드 “Roe v. Wade”라는 이름을 얻었다. 당시 새라와 린다는 노마에게 이 사건을 이기려면 그녀의 셋째 임신은 나쁜 쟁단에 의한 강간으로 인한 것이라는 거짓말을 해야 한다고 했고, 노마는 그 말을 그대로 따랐다. 사실, 새라와 린다에게 필요했던 것은 성폭행으로 임신해서 낙태가 절실하지만 돈이 없어서 다른 주로 여행하지 못하는 텍사스 여성이었던 것이고, 당시 집도 없이 방황하던 노마는 그들이 그렇게 애타게 찾던 인물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다.

20여년이 흐르고, 노마는 그동안 낙태 찬성을 외치는 프로초이스 <sup>Pro-choice</sup> 회원으로 열심히 낙태를 옹호하며 낙태를 장려했다. 왜 내 몸인데 내가 원치 않는 아이를 임신해서 낳아서 기르는 수고와 고통을 당해야 하는 것이냐며 외쳤다.

“My body! My Choice! My Life! (내 몸과 낙태와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한다!)”

그녀는 제인 로로서 여성들에게 낙태 선택의 자유권을 주며 그들의 삶을 향상시켰다고 자부했다. “I am Roe”라는 자서전도 출판했다. 그녀의 첫 작가로서의 출판기념회가 텍사스에서 열렸다. 그녀의 인생을 바꾼 사건의 시작이기도 했던 그 곳에서 출판기념회를 열게 되어 매우 설레던 노마 앞에 예상치 못했던 사람이 나타났다. 낙태를 반대하는 단체 회원들과 대표 플립 벤햄 <sup>Flip Benham</sup> 목사가 그녀의 시신을 사로잡았다.

벤햄 목사: “노마 맥코비씨, 당신이 한 짓으로 인해 2천7백만 명이 넘는 어린 아이들이 살해 당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로 인해 그녀는 매우 큰 충격에 휩싸였다. 그런 그녀는 이웃 사촌이자 최대의 적이었던 낙태 반대 프로라이프 <sup>Pro-life</sup> 단체의 최연소 멤버인 에밀리 맥키 (당시 7세)와 첼시 맥키 (당시 3세) <sup>Emily and Chelsea Machkey</sup> 자매의 도움으로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회심을 통해 그녀 자신뿐만 아니라 수많은 세상의 빛도 보지 못하고 죽음을 당한 태아들을 창조한 신이란 존재가 있음을 믿게 되었고, 그녀가 만들어 낸 새로운 법, 곧 ‘낙태 합법화’가 얼마나 큰 악인지를 깨닫게 되었다. 그녀는 그동안 자신이 몸담고 있던 프로초이스 단체에서 끝도 없이 자기의 눈 앞에서 몸이 잘려진 채로 죽어 나간 태아들을 떠올렸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게 되었다. 새로운 경험을 한 노마는 즉시 참회하는 마음으로 프로초이스 활동을 끝내고, 프로라이프 활동에 뛰어들었다. 자신의 가명이 영구히 인쇄되어버린 역사적인 사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파기하려는 노력도 이어갔지만, 이미 만들어진 법을 다시 되돌리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를 깨달으며 숨을 거두는 그 날까지 생명의 소중함을 외쳤다.



\*\* 이 이야기는 실화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노마 맥코비의 실제 인생 스토리에 대해서는 ‘노마의 회심(The Conversion of Norma McCorvey, KNXT Catholic TV)’ 다큐멘터리와 ‘노마 맥코비의 단순하지 않은 삶(Deepr Media, 2017년 3월 9일)’, 그리고 ‘낙태를 합법화했던 1973년 미국 연방대법원(한국일보, 2016년 1월 22일)’ 기사에서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